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의 장애, 그 실태에 관한 고발

- MBC, KBS, SBS 메인 뉴스를 중심으로 -

김지은

서론

흔히 뉴스를 ‘세상을 보는 창’ 이라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 뉴스를 보고 뉴스가 전하는 소식을 우리는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굳게 믿었던 뉴스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종종 한쪽 편만을 보도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한편은 철저히 무시해 버림으로써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도록 한다면, 뉴스를 믿고 신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 방송이 소외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 도가 심하다는 생각이다.

장애인의 90%가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내가 현재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장애인을 나와 다른 범주로 대상화해 봐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은, 그것도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뉴스에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뉴스를 자세히 보다보면 장애인의 이미지가 몇 가지로 압축되어 표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비단 뉴스에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공정하다고 믿고, 또 가장 신뢰감을 가지고 대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TV뉴스이기에 뉴스에 표상되는 장애인의 이미지에 주목하게 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격인 장애인과 공정성의 대변인격인 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에 방송이 어떻게,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방송과 인간 간의 거리감을 좁혀봤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본론

1. 장애인은 영웅이거나 무능하거나? : 극복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리는 흔히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해 “장애를 극복” 하고 “성공” 한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를 종종 접하게 된다.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MBC에서는 7월 6일, 7살 때 미국에 입양된 청각장애아가 ‘장애를 “극복” 하고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고 전했다. 7월 21일에는 ‘10대 자폐아가 장애를 “뛰어넘어” 철인 3종 경기’ 를 해냈고 ‘인간의 “한계를 넘는 철인” 으로 성장’ 하고 있다고 전한다. 7월 26일, SBS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해 고통스러운 학교생활을 해오던 한 여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한 법적 투쟁에서 “승리” 했으며, 장애인 모두를 위한 “싸움” 이었기에 “승리” 는 더욱 값진 것’ 이었다고 한다. 또 8월 15일에는 ‘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소녀가 한강을 헤엄쳐 건너는데 “성공”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위 뉴스들은 장애를 “극복” 하고 “싸우고” “승리” 해서 결국 “성공” 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간주한다. 그야말로 뉴스는 장애인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는 철인” 이 되기를 강요한다. 이런 뉴스는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는 물론 사회의 편견에도 “도전” 하고 “극복” 해내야만 “승리”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낳는다. 반면 자신의 장애와 사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대개의 “성공” 하지 못한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이미지를 생산해낸다. 즉 ‘성공한 장애인은 영웅,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무능’ 하다는 이분법적 이데올로기 속에 장애인을 가두어 두고, 시청자가 그렇게 보도록 유혹한다.

장애인은 비주체적이고 의존적? : 도와주고 도와주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SBS는 9월 22일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빵집과 카페를 소개한다. 이 기사에서 한 시민은 ‘찾는 것만으로 뭔가 도와주는 느낌’ 이라고 한다. KBS는 10월 7일,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하는 교육은 양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고 말한다. 기자는 '비장애 어린이는 장애 어린이를 통해 남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고 말하고, 한 전문가는 '비장애아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성취감이 사회에 나가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고 한다.

SBS가 보도한 장애인 관련 기사는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빵과 차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그들이 파는 음식을 사먹는 시민은 돕는다고 말한다. 장애인들에게 거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먹는 것도 아닌데(보도내용에서는 가격이 싸다고 함) 장애인에게 뭔가를 사는 행위는 왜 도움이라고 생각할까? KBS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비장애아가 장애아를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보도에서는 비장애아가 시키면 장애아가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아의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이미지를 도출해낸다. 기자의 멘트나 전문가의 인터뷰에서도 장애아는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 비장애아의 일방적인 우월감을 조장한다. 장애아는 비장애아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일까? 비장애아, 장애아 구분없이 서로 어울려야 하는 평등성의 원칙하에서 보도가 출발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걸까? 이런 기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장애인을 의존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게 하고, 장애인을 대함에 있어서 우월감을 조장하면 어떻게하나 하는 염려는 지나친 기우일까?

이런 기사는 수용자들에게 장애인은 늘 도와줘야만 하는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사람들이라는 등식을 주입시킴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에서 회피하도록, 국가와 국민·방송이 삼위일체가 되어 공범자로 남는데 기여한다.

장애인의 생명은 하찮은 것? : 고작 장애인을 살리자고...

5월 9일 새벽, 충남 부여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불이 나 장애인 3명과 복지관 원장인 표 병구 목사 등 모두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MBC는 이 사고를 '표 목사가 장애인들을 구하려다 아깝게 목숨을 잃었다' 며, '시설이 열악해서 복지시설로 정식인가를 못 받았고 나무를 때 난방을 했으며 그로 인해 불이 난 것' 으로 보도한다. KBS는 '희생자가 적었던 것은 표 목사의 살신성인 덕분' 이라고 전했다.

다. SBS도 ‘표 목사의 살신성인이 대형참사를 막았다’ 며, ‘불이 난 복지관은 지난 5년 동안 소방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는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다.

위 기사들은 하나같이 장애인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표 목사의 “살신성인” 만을 안타까워했을 뿐, 나머지 3명의 장애인들의 죽음은 철저히 무시해 버린다. MBC가 언급한 ‘시설이 열악해서 복지시설로 인가를 못 받았다’ 는 부분과 SBS가 말한 ‘5년 동안 소방점검을 한 차례도 안 받은’ 사실은 이 시설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결국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음에도, 미인가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의 실상과 현실에 대해 뉴스는 한 번도 되돌아보는 법이 없었다. 감히 단언하건대, 만일 희생자들이 비장애인이었다면 절대 이런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끝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열악한 시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3명의 장애인의 목숨은 이들 뉴스에서는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도 못 받을 만큼 열악한 시설에 방치해둬도 된다는 것인지, 그런 이유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비장애인의 죽음만 아깝고, 장애인의 죽음은 당연 하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준비 없는 봉사가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없는 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사고이고 장애인들은 계속 그런 위험 속에 방치된 채 살아가게 된다. 위의 기사들에서는 장애인의 목숨은 더욱 더 무시되어버려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마저 조장하게 된다. 이런 식의 기사는 장애인의 목숨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덜 소중한다는 사회적 함의를 낳는다.

정신질환 장애인은 위험? : 사회의 일탈자, 폭력, 범죄, 살인...

지난 9월 4일에는 50대 정신질환자가 교회의 지하식당에서 어린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0여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KBS는 후속 기사로 ‘정신질환자 관리가 허점’ 이라며, 정신질환자의 관리소홀 부분까지 기사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 사고 화면인, 붕대를 감고 치료중인 아이들과 어

이없는 사고에 놀란 부모들의 울부짖음만이 다음 화면까지 반복·되풀이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정작 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라는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차분하게 바라 볼 냉정성을 빼앗아버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자는 보도의 마무리를 ‘정신질환자에 대한 느슨한 관리 속에 정신질환자의 예상치 못한 범행이 우리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다’ 며 정신질환자의 위험을 경고하고 끝을 맺어 화면과 멘트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극도의 위험성만 재확인시키고 기사를 원위치로 되돌려버린다.

한편, SBS는 이틀 후 9월 6일, <정신질환자 범죄관리 허술...재범 60%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을 언급하고 ‘9월 5일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고 기사를 시작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한 상태에서 보도를 출발한다. 이 기사는 ‘어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자는 1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전과가 11범’ 이라고 전한 후 ‘그제 유치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신질환자도 97년부터 정신치료를 받아왔고, 폭력혐의로 두 차례나 입건된 재범자’ 라고 한다. SBS는 말미에 국립 서울병원 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내용은 ‘가족과 환자에 대해 따돌리니까 오히려 환자를 숨기고 사회문제로 끓아 터져 나오는 것’ 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정신병도 완치가 가능한 만큼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는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했다. SBS는 아마도 이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소홀이 정신질환자의 재범율을 높인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기사가 정신질환자의 재범과 관리소홀을 한 꼭지 안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신질환자의 높은 재범율’ 만이 두드러져 소기의 목적(체계적인 관리로 인한 재범 예방)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위 기사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구체적인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신질환자의 의료복지나 시설의 문제점, 관리체계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관련한 심층취재를 하여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 해야 했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뉴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했으나, 우리 뉴스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만 조장해 놓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는 별 수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는 ‘정신질환 장애인 위험’ 하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

고, 정신질환 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범죄인자를 지닌 인간 군으로 범주화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장애인은 비정상? : 시위·점거·농성·쇠사슬에 수감...

9월 11일, 장애인 70여명이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장애인들은, 지난 5월 휠체어 장애인 윤재봉씨가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숨진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한 것이다.

발산역 사고에 관해서는 5월 21일 SBS에서만 보도하고 나머지 두 방송사는 이런 일에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 바빴다. SBS는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휠체어 승강기 고장사고는 서울에서만 무려 8백 건, 제 2·제 3의 추락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손질이 시급’ 하다는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 기사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BS가 문제점을 짚어내고도 사후 취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9월 11일 이와 관련해 있었던 장애인들의 지하철 선로점거 시위에 관해서 기대 이하의 보도를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9월 11일, 장애인 선로점거 시위와 관련해 SBS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지난 5월 장애인 김모씨가 리프트를 타려다 떨어져 숨진 것에 대해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며, ‘지하철 운행의 중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 사건의 개요를 일러주는 수준에서 기사를 멈추고 있다. 또 이 기사에서는 ‘윤씨’ 를 ‘김씨’ 로 말하는 결정적인 실수도 있어 SBS가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MBC는 앵커 멘트에서 ‘(장애인들이)서울시에 지하철을 타려다가 숨진 장애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 이라고 시위 원인을 파악했다. 보도 기자는 ‘시민은 물론 경찰도 놀랐다’ 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했다고 전한다. 결국 MBC는 장애인들의 궁극적이며 절박한 요구, 즉 이동권 보장에 관한 보도는 빠져있어 MBC가 다른 일로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있었다.

KBS는 9월 11일, 앵커가 ‘자신들도 정상인들처럼 지하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시위목적’ 이라고 하고, ‘사다리에 목을 내밀고 몸에는 쇠사슬을 묶어 인간열차를 만들었다’ 며 장애인들의 불편한 몸으로 인한 시위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동할 권리가 있고 일할 권리도 있다’ 는 장애인의 인터뷰 바로 다음에 기자는 ‘이 때문에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일시에 모두 멈춰서고 말았다’ 고 말하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의 ‘지금 이분들께서는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는 인터뷰에 이어, 또 기자가 ‘시민들은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몸부림에 공감하면서도 지하철까지 멈춘 것에는 항의하기도 했다’ 며 시민과의 인터뷰 ‘당장 사과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인권이 있다고요’ 를 줄줄이 내보내고 있다.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한마디에 각계각층의 불만과 기자의 불편한 심사까지 덧붙여 기사전체가 마치 온 국민이 장애인의 요구에 항의하는 듯한 편집의 묘를 보였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지 마지막으로 기자는 ‘경찰은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전원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 이라며 결국 장애인들의 행위가 위법이었다고 한 방 더 날린 후에야 끝을 맺었다. 다음날 (9.12), 다행히 KBS는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절규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 (앵커 멘트)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서울의 지하철역 263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6곳은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예 없고 그나마 발산역 사고 이후에는 있는 시설도 불안해 사용할 수가 없다’ 는 기자 멘트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관한 실상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기자는 마무리 멘트에서 ‘장애인용 버스의 경우 1대 값이 2억원을 호가하고 있어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고 결정적으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어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있었던 9월 11일 보도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KBS의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앵커가 말한 ‘자신들도 정상인들처럼’ 이라는 대목은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말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다른 부류로 범주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BS는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아니며, 단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본 사건과 관련한 보도 태도에서는 MBC는 무관심, SBS는 관심은 있으나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KBS는 정상인도 아닌 장애인들이 정상인을 불편하게 하면 서까지 참고 살지않음에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장애인은 쇠사슬로 몸도 묶고 수갑도 차고 사다리에 목을 내밀고 철로에 눕기도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반인을 놀래키는, 즉 ‘장애인은 비정상적’ 이라는 비장애인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요약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TV 뉴스가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가히 위험수위라 할 만하다. TV뉴스는 영웅 아닌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비주체적이며, 의존적이고, 위험하며, 비정상적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낸다.

뉴스는 장애인을 성공한 장애인과 실패한 장애인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자신의 장애와 사회의 편견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장애를 사회문제로 이슈화하지 못하고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게 한다. 또 뉴스는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며, 일반인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장애인을 사회의 짐으로 느끼게 하고, 장애인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시청자의 정신을 마비시킨다. 더욱 위험한 것은, 정신질환 장애인의 경우 문제행동만을 극적으로 내보이고, 그 내면의 근본적인 치료와 복지의 문제는 덮어버림으로써, 정신질환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은연중 정신질환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애인들의 목숨 건 대중교통 이동권 요구를, 장애인들이 선로를 점거하고 쇠사슬로 몸을 감고 수갑을 차는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버림으로써, 장애인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로 묘사하고 장애인을 대상화해서 구경거리로 삼는다. 감정이입을 제어 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시청자의 관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놓음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에 방관하도록, 뉴스는 시청자도 공범자로 만들어버린다.

결론

뉴스가 신뢰받는 이유는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뉴스가 신뢰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신뢰의 요소를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란 일어난 사건만을 그대로 일러주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뉴스의 신뢰감은 사회내부의 질서에 내재된 모순으로부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뉴스, 다시말해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도저히 공정하게 살 수 없는 대다수 힘없는 약자들의 서러움과 울분, 고통에 뉴스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약자들의 삶을 거대한 뉴스가 가장 공정한 눈으로 그 서러움의 모순을 파헤치고 제 소리를 내줄 때 진정 우리가 신뢰하는 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스가 사회적 강자편에서 약자들의 삶과 괴리감을 쌓고 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은 울분의 출구로 또다시 거리로 뛰쳐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뉴스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구조적 모순을 제 색깔로 말할수 있을 때 비로서 중립적인 뉴스가 될 수 있고, 앵무새 뉴스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소리에도 귀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뉴스이기 때문이다.